

버럭 12월호

Contents

센터돌보기 [외부사업평가]	2
직원역량강화교육	4
강북센터 평가회를 진행하며	6
인턴 생활을 마치며	8
< 자립생활주택 > 여가 · 문화체험-태양의 서커스, 요리실습-김밥과 제육덮밥	10
장애학생 폭행이 끊이지 않은 이유	12
장애 관련 시장 블루오션 '퍼플 파운드'운동	14
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	16
이달의 정보	18
이달의 시	20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1
광고(연하장)	22



센터돌보기 [외부사업평가]

주영경



2018년 11월 29일(목) 14:00 ~ 17:00 하반기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가 진행되었다.

7

이번 하반기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는 20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IL센터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선택 및 특화사업) 산출결과에 적합한 척도검사 활용 및 척도의 다양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외부자문을 받게 되었다.

외부자문위원으로 섭외된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님은 강북센터에 처음 방문하셨으며, 기본적으로 사무실 라운딩 후 티타임을 가졌다. 초면인 상태라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음을 익혔다.

자문위원으로 섭외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며 자연스럽게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가 진행되었다.

“제가 이번 자문위원으로 섭외는 되었지만 실무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윤재영 교수님의 첫 마디였다.

3시간가량 진행되는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는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 진행

IL센터 기본사업에 적합한 척도지를 알아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실무자와 함께 논의해보았다.

척도지의 가짓수는 셀 수 없이 매우 많아 혼란스럽기도 하고, 서울시센터지원사업 구성원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 분야를 처음 접하거나 근무경력이 2년 미만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 강사의 자문으로 실무자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번 하반기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는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들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 IL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외부자문을 위해 먼 길 와주신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IL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직원역량강화교육

정진경



카카오톡 활용법 강의

4차 실무지역량강화 교육은 12월 06일 (목) ~ 07일(금) 베스트웨스턴 아리랑 힐 동대문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을 받기 전 혜화역 맛집인 순대실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교육장소인 SNS소통연구소로 향하였다.

SNS소통연구소의 이정화 강사님의 진행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홍보 및 블로그 관리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카카오톡에 숨겨진 기능을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톡에서 QR코드를 활용하여 친구 추가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음성녹음을 하는 방법도 배웠다. 강의는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블로그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게시물을 작성하며 사진을 편집하고 다양한 효과를 집어넣어 게시물을 꾸미는 방법들을 배우며 블로그를 관리하며 홍보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알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블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다음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을 편집하고 동영상을 만들며 개인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명함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종이 명함과는 다르게 불편하게 들고 다닐 필요 없으며 명함을 받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쓰레기가 생기지 않아 매우 깔끔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명함을 끝으로 교육은 끝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블로그 관리법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났다. 강북센터 직원들은 교육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짐을 풀고 짧은 휴식을 가진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숙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찌개 집으로 향하였다. 메뉴로는 부대찌개와 철판차돌박이였고 다들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다.

다음날 4차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평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평가와 의견들이 나왔다. 그 중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으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사진을 이용한 동영상 편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종이명함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 디지탈 명함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 보다 효과적으로 센터 및 개인 PR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4차 직원역량강화 교육은 2018년 마지막이었던 만큼 더 뜻 깊은 교육이 되었던 것 같으며, 2019년 강북센터도 더 발전하며 나아가는 항상 전진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4차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단체사진

2018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김지연



소장님의 인사말

2018년 12월 14일(금) 3시~6시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를 진행하였다. 강북센터 평가회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 전체의 설명 및 실적보고를 통하여 이용자 및 회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강북센터 직원들은 평가회 시작 전 행복실에 도착하여 현장 세팅을 시작하였고, 좌석 배치, 마이크 설치, 현수막 부착, 안내데스크 세팅, 기념품 및 다과를 준비 하다 보니 서서히 이용자와 회원들이 도착하였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종남 소장님과 강북구 비례대표 최미경 대표의 축사로 평가회가 시작이 되었다. 1부에는 활동보조중계기관 공지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우수활동지원사 시상, 단체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공지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활동지원사들의 향후 활동 방향 및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릴 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궁금증들을 질의응답을 통하여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활동지원사 시상식

이어서 2부에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보고가 진행되었다. 작년도 평가회와는 다르게 이번 평가회에서는 서울시센터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주택, 구청지원 동료상담 사업보고도 함께 진행되어 강북센터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파악 및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강북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인턴 직원들의 소감문 발표도 함께 진행하여 평가회 완성도를 높였



발달장애인 단기인터뷰 발표중인 권○○씨

다. 사업보고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이용자와 회원들의 욕구조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참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평가회가 끝난 후,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주시고 사업에 참여해주신 이용자와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기념품(보조배터리) 및 다과를 배포하였으며, 이용자

과 회원들은 기념품(보조배터리)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아주 유용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기념품 배포를 마지막으로 평가회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평가회를 통하여 이용자 및 회원들과 함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 해를 돌아보며 소통할 수 있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내년도 사업에 이용자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북센터 기념품(보조배터리)와 떡 배포 모습

남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단체사진

< 자립생활주택 문화·여가체험, 요리실습 >
「태양의서커스 - 쿠자」 「김밥, 제육볶음 만들기」

김다희

11월 30일 문화·여가체험프로그램 뮤지컬 '태양의서커스 - 쿠자' 관람은 가형 주택 입주자분들만 참여하였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입주자 김○○씨는 안내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좌석에서 무사히 관람할 수 있었다.



유독 추운 날씨 속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입주자분들 모두 정신 없어하시며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고, 추운날씨와 많은 사람들 때문인지 입주자분들께서는 포토 존에서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시어 난감한 상황도 펼쳐졌지만, 공연이 시작된 후 입주자분들께서는 색다른 공연모습에 신기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옆자리에 앉은 입주자 정○○씨는 많은 질문들을 던져가며 서커스 공연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입주자 신○○씨는 의자의 맨 앞으로 몸을 당겨 입을 벌리면서까지 집중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휠체어좌석에서 관람한 입주자 김○○씨는 가까이에서의 반응을 확인 할 수 없었지만, 공연이 끝난 후 공연에 질문에 '너무 멋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뜻 깊은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12월 05일 2018년 마지막 요리실습을 진행하였다. 메뉴는 그동안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출석으로 인하여 많은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한 입주자 정○○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김밥과, 제육볶음 만들기로 하였다. 요리실습에 필요한 재료 구입은 입주자 정○○씨와 함께 진행하였고, 평소 모습과 다르게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리실습 재료를 구입하는 정○○씨



가형 입주자분들이 김밥을 만드는 모습

정○○씨는 종이에 적힌 재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선생님, 깻잎은 여기 있어요, 파도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이쪽에 있어요.’ 라며 신이 난 모습으로 마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정○○씨의 색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자립생활주택 코디로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입주자분들은 요리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특히 김밥 만들기에 다들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입주자 김○○씨는 프로그램 활동이 다 끝난 후 ‘김밥은 이제 하지 맙시다, 너무 정신없네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으며, 다른 입주자분들도 입주자 김○○씨의 의견에 동일한 평을 하셨다. 아무래도 김밥은 준비과정이 복잡한 음식이다 보니 만들기에 재미있으면서도 지쳐하시는 모습이 언뜻 언뜻 보였다. 다음 요리실습은 입주자분들이 만들기 간단한 메뉴로 선정하여 진행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요리실습은 오랜만에 입주자분들 모두가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에 자립생활주택 코디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어 뜻 깊었던 것 같다.

나의 첫, 인턴생활을 마치며.....

이선자



▶ 동료상담가보수교육 받는 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03월부터 1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한 이선자입니다.

‘서울시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에서 발탁되어 강북센터에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배울 수 있는지와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스런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강북센터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턴으로써 저는 주로 센터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보조를 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가령, 프로그램을 진행 후 만족도조사지 통계작성이라든지, 교육장 셋팅과 교육 참관도 하였으며, 그로인해 저는 문서작업과 엑셀작업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강북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스텝으로 참여하며 만족도조사지 작성을 힘들어 하는 참여자들을 도와드렸으며, 처음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지 통계와 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지만, 센터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며 알려주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지난 08월 17일에 진행했던 강북구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회의를 방청하였고, 조례제정회의를 방청함으로써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으며, 강북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이 강북센터로 인해 만



▶ 요리교실 프로그램 보조모습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들어졌다는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북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상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센터에서 진행하는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에 참관하여 동료상담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으며 작성법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단동료상담에서는 집단동료상담이 무엇인지 배우고 체험하며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경청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직접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나보다 더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대학 진학을 꿈꾸며, 사회복지사가 꼭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치담그기 보조하는 모습

‘2018년 체험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에 스텝으로 참여하였고, 저의 임무는 참여자들이 오시면 앞치마와 장갑을 드리고 스티로폼 박스에 참여자들 이름을 적어 하나씩 드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김치 담그기에 스텝으로 참여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립생활을 하는 참여자들에게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서비스 구비추가 사업 색인목록과 각월별 주간업무 보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정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가며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통해 근로지원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북센터에서는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매달 웹진을 발행함에 저도 장애인과 관련 있는 영화관람 후기 기사를 작성하여 웹진에 실었고, 다양한 강사님과 여러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12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를 들으며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관심이 생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토론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소장님, 국장님, 팀장님, 대리님, 여러 직원 분들께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학생 폭행이 끊이지 않은 이유’

문지수



▲ 서울 도봉구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 인강학교’ 모습 ©대한장애인신문 사이트

2018년 10월 02일(금), 서울 인강학교의 사회복지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회복지무요원은 장애 학생을 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다른 사회복지무요원들도 장애 학생을 비웃으며 괴롭혔었다는 사실과 장애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THE FACT(더 팩트)’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018년 07월 20일(금),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교사는 지난 09월에도 피해 학생을 학대했었다는 사실과 다른 교사들도 학생들을 폭행했었던 사실을 드러나게 되었다.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세종시 누리학교에서도 교사가 9살 자폐장애 학생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과 사회복지무요원이 그 자폐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들을 조사하며 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이 왜 끊이지 않는 것인가와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모습 ©MBC 뉴스 사이트



▲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립 특수학교인 '세종 누리학교' 모습 ©구글 사이트

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특수학교를 비롯한 가해자인 사회복지요원 및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폭력을 행한 가해자를 피해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가려해도 특수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폭력전과가 있는 교사와 사회복지요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때문에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마련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특수학교를 비롯해 장애인시설 등 장애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방문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장애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점검결과 및 상담을 진행하여, 폭행에 대한 은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특수학교에 종사하는 교사 및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등 보다 체계적이며 강화된 교육을 진행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2768&ref=A>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6175729871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883088&sid1=001>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3117900004?input=1195m>

https://www.youtube.com/watch?v=VSeLhTNTS_c

[위의 글은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하는 행사인 접근 가능한 쇼핑의 "Purple Tuesday" 을 시작했다. 접근 가능한 쇼핑의 날에서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씨 사이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 설치, 매장 내 휠체어가 지나 갈 수 있도록 통로 넓히기, 중심지에 위치한 상점에 경사로 설치를 하여 장애인들이 쇼핑을 수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 영국 '퍼플' 의 CEO인 마이크 아담스는 올해 처음으로 접근 가능한 쇼핑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inews.co.uk

퍼플의 CEO 마이크 아담스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성수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매주 420만 파운드의 매출 기회를 잃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러한 행사가 단편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들어야 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이 설치된 곳이 부족하다. 마이크 아담스의 말대로 우리나라 기업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 시장에 대해서 큰 매출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요식업이나, 쇼핑몰 같은 민간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하여 좀 더 편리한 시설이 설치되길 바라고, 이는 장애인 소비자는 불편함 없이 쇼핑을 할 수 있어 기업은 매출을 증대 할 수 있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81123121330662647>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

주종혁

‘교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아마 독자마다 생각나는 것이 다를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교실 하면 부모님 손을 잡고 교실을 처음 들어갔던 설렘의 공간이자 졸업장을 손에 쥐며 친구들과 헤어졌던 아쉬움의 공간까지 많은 생각이 든다. 이런 여러 감정을 선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교실은 교육의 공간이자 관계의 장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러한 교실에 대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바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의해 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장애인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장애인은 지역 주민 센터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선정이 된다.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분류된다. 물론 장애인분들 대다수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치면 이제 두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는 특수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일단 이 두 사람이 하는 의견을 들어보자.

특수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른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듯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뿐더러 적합한 커리큘럼과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는 온전히 특수교육 수혜자를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된 교육의 장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차별화된 교육과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역량에 맞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결국엔 사회로 나갈 사람이다. 이들은 사회로 나가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일을 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사람들인데 교육을 받을 때부터 분리된 상태로 교육을 받는다면 후에 사회로 나가 구성원과의 협업을 하는데 어색할뿐더러 개인이 겪는 심리적 어색함과 이질감 등 내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교육을 받으며 학교가 갖는

2018년 서울시장애일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중요한 역할인 사회적 중진과 교육에 동등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누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그룹은 가상의 그룹이고 이들의 의견도 필자 개인의 의견이다. 하지만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장점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많이 반영했다. 분명히 둘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 시스템은 이 둘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필자는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문제여야지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를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의 규모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과 교원과 특수학급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반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시스템이 해가 갈수록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한국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장애인분들의 많이 열악한 것을 느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장애인분들이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선택을 국가가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통합교육과 분리교육 어떤 것이든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애인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4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3만5000명 지급...장애인 등 대상

산림청이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3만 5000명에게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용권 신청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스템(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용객의 사용편의를 위해 전담 고객센터(☎ 1544-3228)를 연중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2019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2&NewsCode=000220181220105248282646>

장애인 자립일터 ‘행복한베이커리&카페’ 12개소로 확대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일터 ‘행복한베이커리&카페’가 현재 7개소에서 2023년 12개소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5년 동안 매년 1개소씩, 총 5개소를 추가로 오픈한다는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계획이다.

‘행복한베이커리&카페’는 서울시와 SPC행복한재단, 푸르메재단이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만든 카페다.

서울인재개발원 다솜관에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서울도서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등 현재 총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장애인 직원 21명을 비롯해 총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세 기관은 2013년 체결한 협약 이후 서울시는 카페가 입점할 공간을 제공했다. SPC행복한재단은 인테리어, 설비를 담당하고 장애인 및 직원 교육, 신제품개발, 위생 점검 등을 지원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며 카페 운영 등을 총괄했다. 카페 수익금 전액은 직원 급여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SPC행복한재단, 푸르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7개소를 5년간 연장 운영하고, 매년 1개소씩 5개소를 추가 오픈하기로 했다.

SPC행복한재단은 “빵을 나누면 끼니가 되지만, 만드는 기술을 나누면 꿈이 된다”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자,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민·관 협력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 또한 지역 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1218085301640516>

설일(雪日)

김남조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살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둥충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항승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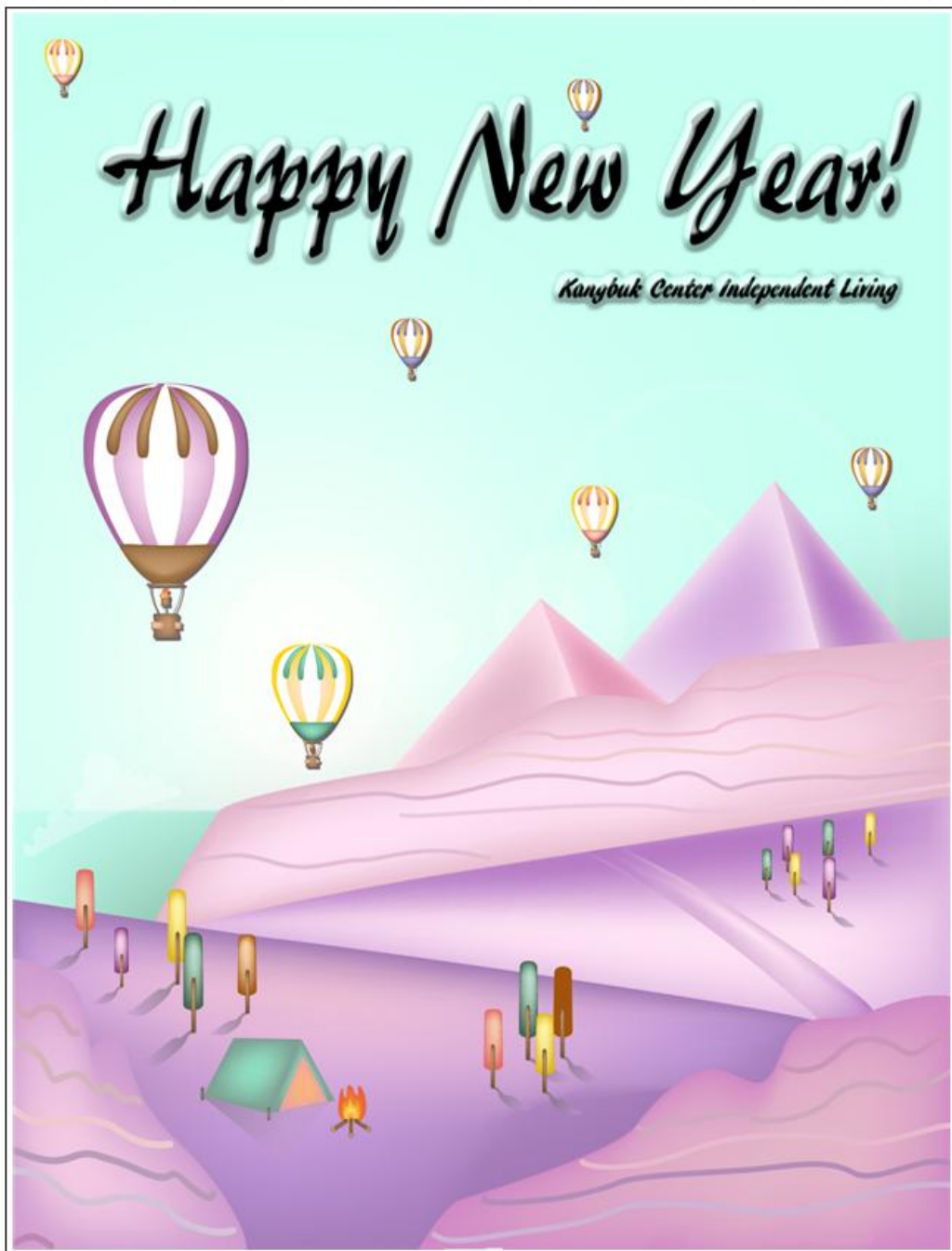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엘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효성에프엘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8년 12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김지연 박동열 박민숙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허효숙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